

지역 경제 · 문화 · 관계를 살리는 지역화폐 활용방안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김 이 경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



지역 경제 · 문화 · 관계를 살리는 지역화폐 활용방안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김 이 경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김용수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정지연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3. 12.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개념/역사와 필요성
- 사례로 살펴보는 지역화폐의 다양성
- 지역화폐 활용방안

저자 소개

김 이 경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졸업
- 한양대 대학원 문화인류학 석사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

1. 지역 경제 · 문화 · 관계를 살리는 지역화폐

삶에서 꼭 필요한 건 무엇일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 부족하지 않은 먹거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주위 가족과 친구 등이 언급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압도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 바로 ‘돈’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 건강 등 추상적인 단어를 언급하지만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 돈이 없으면 이동도, 소비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청년세대는 불안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으로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 불리기도 한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쩨’의 전쟁터에 들어서 있다. 물가는 치솟지만, 월급은 제자리다. 그리고 전세는 찾기 힘들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은행에 미래를 저당 잡혀 대출을 받아 꼬박꼬박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도 힘들면 월세방을 전전하거나 노숙센터를 치고 주거권을 외치기도 한다. 지역활동가, 문화예술가들도 프로젝트에 기반한 사업 및 공연을 진행하며 불안한 일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돈, 돈, 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돈은 주고, 받는 교환수단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우러러보고, 원하고 있다. 소비를 줄이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돈을 다시 교환수단이라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 중 ‘돈’이라는 직접적인 매개로 실험하는 것이 ‘지역화폐’ 운동이다.

지역화폐는 달러, 유로화, 엔화, 원화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와 달리 지역 중심 경제의 실험이자 시도다. 지역화폐를 통해 거대한 자본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동네슈퍼, 동네빵집, 동네문화배움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해 기존 경제에 균열과 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 등으로 철저히 소비자 - 생산자를 분리하고 결제 외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비구조에 대한 또 다른 시도이기도 하다. 더불어 문화와 사회를 잠식한 자본 중심의 경제를 보다 인간 중심의 살림살이 경제/문화로 만들기 위한 실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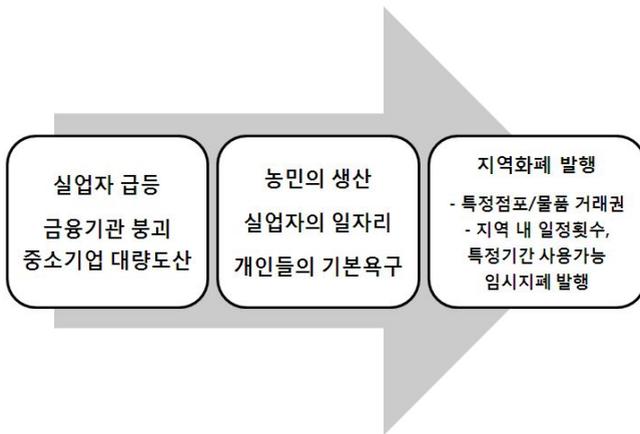
지역화폐 개념/역사와 필요성 - 진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가) 지역화폐 개념과 역사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발행 주체가 반드시 국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은행이 아니더라도 개인/단체 단위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자체제작 화폐, 통장, 쿠폰, 온라인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존재한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오랜 기간 소유할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늘린다. 마치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지역화폐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지역화폐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32년 로버트 오웬이 발행한 노동증권을 지역화폐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1930년대 미국 등 유럽에서 만들어진 지역화폐가 더 가깝게 와 닿는다. 1930년대의 금융위기, 경제불황, 높은 실업률과 같은 상황은 현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1930년대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었던 지역화폐를 살펴보자.

[1930년대 미국/유럽 지역화폐 등장 배경]



1930년대 당시 미국, 유럽에서는 순식간에 은행이 문을 닫고 예금주들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생산해 시장에 내놓았지만 돈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이를 구입할 수 없었다. 결국, 도시와 농촌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종잇조각’에 불과한 화폐(돈)이다. 먹을거리와 노동력은 충분하지만, 교환수단인 돈이 부족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깨닫고 사람들은 스스로 화폐를 발행해 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 남북전쟁 이전인 18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화폐인 셈이다. 연방정부,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화폐를 발행했고, 당시 지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10,0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남북전쟁 이후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체제가 확립되고, 주정부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들이 발행하는 화폐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발행되는 화폐는 사라졌다.

다시 돌아가 1930년대 발행된 지역화폐를 살펴보자.

- 오스트리아 뵘르크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미하엘 운터구겐베르그가 적극적으로 화폐 발행
- 은행에서 받은 차입금을 담보로 노동증서 발행
- 도로정비 등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사업 임금으로 지역화폐 지불
- 상점에서도 지역화폐 사용 및 세금 납부 가능
- 특징: 마이너스(-) 이자
 -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화폐사용 촉진
 - 이러한 특징으로 당시 사용되던 오스트리아 화폐의 14배 유통속도를 가짐

- 스위스 취리히

- 1934년 중소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만들어짐
-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화폐 WIR 발행
- 인건비, 대출 금액으로 WIR 사용 가능
- 이자가 없으며 스위스 프랑과 1대 1 교환 가능

- 캐나다 밴쿠버

- 마이클 린턴이 LETS¹⁾ 개념 도입(1938년)
- 지역에 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높은 실업률 ↔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
- 지역화폐로 상호거래, 교환

1) 렛츠, 지역교환거래체계: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지역화폐를 일컫는 보통명사로 인식된다.

미국을 비롯해 1930년대에 많은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되었다. 지역화폐가 발행된 이유는 단순했다. 지역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쓸 수 있는 자원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방치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화폐가 발행된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 WIR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제한으로 사라졌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존 화폐의 14배에 달하는 거래량에도 불과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화폐발행의 독점권 침해를 이유로 지역화폐를 금지했다.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대공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경제 통제가 시작되었다. 곧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라는 강력한 신용을 앞세운 화폐가 전역에 쓰이기 시작했고 지역화폐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경제는 롤러코스터처럼 불황과 호황을 반복했고, 불황일 때마다 지역화폐가 대안으로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영국은 300여 개의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200여 개의 화폐가 발행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정부에서 지역화폐로 실업자와 저소득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5년 호주 사회보장법을 통해 지역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이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정부에서 실업자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한다.

한국은 1997년 IMF 당시 ‘실업극복운동’과 ‘지역경제 살리기’의 한 방편으로 서울 관악구, 동작구, 광주, 인천, 대전 등에서 지역화폐운동이 시작되었다. 비록 현재는 대전 한밭레츠 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욕구와 가능성은 재래시장 상품권, 지역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부각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나) 지역화폐 필요성

- 물리적인 ‘돈 부족’ 현상 극복

· 지역 단위에서 물리적인 돈이 아닌 관계 중심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주민의 소비를 지역 상점 이용으로 흐름을 바

꿀 수 있다.

- 이웃과 관계망 확대 가능

· 지역화폐를 거래하거나 장터, 이벤트 등을 통해 만남의 기회가 마련되어 이웃과 관계 맺을 기회가 제공된다.

- 윤리적소비의 가능성 증가

· 지역농산물 소비, 생협, 의료생협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통해 윤리적소비를 확장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

· 지역화폐가 확장되면 일반화폐와 지역화폐의 일정 비율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 기부의 확장

· 지역화폐의 환전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 이를 기부로 확장할 수 있다.

- 자원봉사의 확장

· 비경제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재능나눔 등을 통해 관계와 유대가 생기며 지역화폐 확보를 넘어선 자원봉사 확장이 가능하다.

2. 사례로 살펴보는 지역화폐의 다양성

유형 1 '자원봉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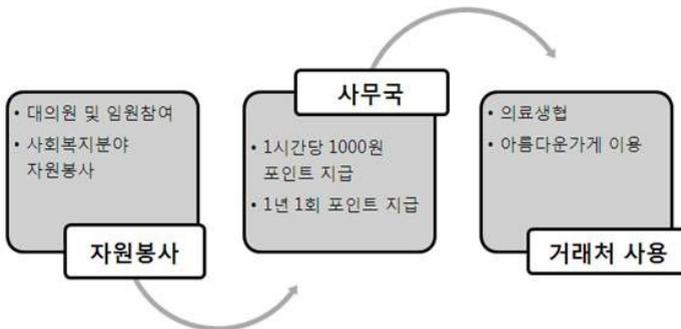
- 안성의료생협 건강화폐

- 목적: 조합원 참여 증대 및 혜택 확대
- 효과: 아름다운가게 사용 증대, 자원봉사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상승

안성의료생협의 경우 건강화폐를 도입해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있다. 자원봉사 시간당 1천 원에 상응한 포인트가 발생하며 이를 아름다운가게, 의료생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2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조합원은 231명(총 4,321시간)이다. 2012년 동안 아름다운가게에서 사용한 액수는 391,200원이며 2013년 상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아름다운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은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센터에 실적을 보내 기록된다. 안성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인가맹점과 연계해 자원봉사자들이 할인받을 수 있다. 안성의료생협에서 건강화폐를 발행한 이유는 ① 조합원이 의료기관을 한 번 더 이용할 기회 마련 ② 맞벌이나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조합원에게 고마움의 표시 ③ 지속적인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건강화폐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안성의료생협 건강화폐 진행 과정]



- 일본 후쿠오카 이와라(いわら)

- 목적: 황폐해지는 농촌 · 땅 지키기, 식량자급률 증대
- 효과: 농촌 마을의 활성화, 버려진 논·밭의 재생, 도시 시민들에게 농사의 중요성 인식 확장

이와라는 일본 후쿠오카 이토시마에서 공동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사지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토시마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가와구치는 30년 후 다시 이곳으로 부임한 후 황폐해진 지역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쌀농사를 짓는 주말농장을 시작했다. 매년 3월마다 농사지를 100~150가구를 모집한다. 대부분 후쿠오카 시내에 사는 가족 단위로 신청한다. 1년 단위 회원제로 무농약 쌀농사를 지으며 퇴직자 및 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텝이 되어 무상으로 조직을 이끌어간다. 1년에 약 8톤의 쌀이 생산되며 회원만 구매할 수 있다. 회원 참여를 높이고 주말농장 방문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7년 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회원들이 농장을 방문하면 회당 500엔 가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주말농장에서 생산되는 쌀 구입은 물론이며 이토시마 카페, 레스토랑, 우유 상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들이 사용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엔화로 교환해 정산을 마친다.

유형 2 '현물기반형'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교환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화폐는 거래처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거래처가 다양하지 못한 까닭에 화폐가 있어도 사용할 곳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 지역화폐가 사라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현물기반 지역화폐가 발행되었다.

- 일본 아이치현 오무스비(おむすび) 주먹밥통화

- 목적: 황폐해지는 농촌 땅 지키기, 소농들이 판로 제공
- 효과: 소농의 판로 안정, 도시 시민들에게 농사의 중요성 인식 확장

아이치현에서 사용되는 오무스비 통화(おむすび 오무스비, 이하 주먹밥통화)는 쌀을 기반으

로 발행된다. 지역 소농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쌀을 기반으로 한 화폐를 통해 농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지역 청년인 요시다의 제안으로 2010년 화폐발행국이 설립되었고, 근처 농가를 방문하거나 주먹밥통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농부와 농가를 확보하고 상점을 늘려나갔다.

2013년 기준으로 농가 12곳, 상점은 120여 개에 이른다. 상점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3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유통량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주먹밥통화는 1무스비에 50엔의 가치를 가졌으며 2012년에 40,000무스비(2,000,000엔)가 유통되었다. 쌀은 2012년에 2.25톤이 거래되었으며 2013년에는 4톤으로 계획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나고야, 도요타, 오카자키, 아사히 등 아이치현의 다양한 곳에서 화폐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헌책방, 카페, 음식점, 꽃집, 정육점 등 이용 가능한 거래처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제휴 농가 쌀과 주먹밥 통화를 교환하는 아이들 / 2012년 상반기에 사용된 화폐]



- 화폐 가치는 매년 결정되는 쌀 가격에 따라 조정된다.
(2013년의 경우 1무스비에 무농약쌀은 60g, 저농약/일반쌀은 120g으로 거래 가능)
- 화폐 뒷면에 광고를 싣거나 소책자를 발행해 가맹점을 모집한다.
- 화폐 발행 후 가맹점에서 구입 및 사용 할 수 있다.
- 보통 6개월 단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 2013년 6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
- 거래는 쌀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엔화로 교환하지 않는다.)

- 춘천 이삭통화

- 목적: 황폐해지는 농촌 땅 지키기, 소농들이 판로 제공
- 효과: 소농의 판로 안정, 도시 시민들에게 농사의 중요성 인식 확장

일본 주먹밥통화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춘천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쌀을 기반으로 한 이삭통화가 발행되었다(2012년). 이삭통화는 지역농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해서 생협운동을 한 한재천 님이 '춘천녹색화폐센터'를 설립해 발행한다. 2012년에 장당 1,000원 가치를 가진 화폐 5,000장을 발행했으며 서점, 생협, 반찬가게 등 약 30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하반기 발행된 춘천 이삭통화]



- 쌀 10kg 기준으로 기존 도매가와 소매가 중간가격으로 가치를 결정한다.
- 생협과 같이 농가에 선지급한 후 쌀을 확보한다.
- 강연, 세미나 수강 비용 및 강사로 - 지역화폐로 사용, 지불 가능하다.
- 가맹점에서 화폐 구입 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

유형 3 '지역금융형'

- 스위스 취리히 WR

- 목적: 중소기업의 활성화
- 효과: 국내외 인정, 중소기업의 이용

193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WR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가장 오래된 지역화폐로 알려졌다.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WR은 초창기에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1936년 스위스 은행법에 근거해 지역화폐를 거래하는 WR은행이 되었다. 현재 참가자는 8만 명 이상, 연간거래는 20억 달러에 달한다. WR은행 계좌를 통해 저리 대출도 가능하다.

기업 간 거래를 주로 진행했으나 개인에게 확대 개방되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식당, 호텔 등 다양한 곳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WR 화폐 지급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WR은행에서는 스위스 프랑과 WR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성남시 성남누리

·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성남누리는 성남의 협동조합교류회(주민생협, 한살림 성남용인, 주민신협 등)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성남지역화폐연구모임을 통해 2011년에 만들어졌다. 성남누리의 특징은 2012년에 1억 8천누리를 발행해 주민신협을 통해 화폐 구입 및 거래, 환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성남누리는 주민신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지폐거래 방식과 온라인 거래 방식을 동시에 활용한다. 지폐거래의 경우 화폐구입 시 3%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45곳에서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성남누리를 일반 돈으로 바꿀 경우 5%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때 발생한 차액으로 저소득층, 시민단체, 청소년 사업 등에 지원한다. 온라인 거래는 홈페이지에 가입해 가입비를 지불한 후 농산물, 생활용품, 재능나눔 등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회원 170명, 후원회원 45명이다.

특히 지역행사, 어린이 벼룩시장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의 참여와 배려가 엿보인다.

[성남누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유형 4 '쿠폰형'

- 부천 오거리화폐

- 목적: 손님 **쓴씀이를 넓혀 가맹점 이용을 늘린다**
- 효과: **가맹점 거래량 소폭 증가**

오거리화폐는 부천 '담쟁이문화원' 원장이자 문화원 1층에 위치한 '밭밭이추억' 식당 사장인 한호석 님의 제안으로 발행되었다. 대형슈퍼 등 부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영세한 가게, 담쟁이문화원 근처 가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현재 식당, 카페, 호프집, 담뱃가게, 약국, 로또가게로 총 6개 가맹점이 있다. (발행은 식당, 카페, 호프가게에서만 진행)

총 금액의 3%~10%를 쿠폰으로 발급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이다. 오거리화폐를 통해 손님의 가게 이용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정산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주고받고 마무리한다.

[부천 지역화폐 '오거리화폐']



유형 5 '네트워크형'

- 녹색연합 <작은 것이 아름답다> (현재는 진행하지 않음)

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97년 IMF 이후 정기구독자를 대상으로 '작아장터'를 마련해 전국단위의 네트워크형 지역화폐를 공유했다. 1999년 5월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살펴보면 전국 독자들이 참여해 나눌 수 있는 것, 도움받았으면 하는 점 등을 공유한다. 실제로 거래도 많이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의 만남과 편집실과 독자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졌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작아장터는 지역적 기반에서 벗어나 회원, 독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작아장터

작아장터 :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 (+)는 도움 줄 수 있는 것, (-)는 도움 받고 싶은 것을 나타냅니다.

김○○(여) 서울시 동대문구, 019-****-****

(+) 일본어 문법 초급 지도 (-) 첼로 교습

백○○(여) 서울시 종로구, 02-****-****

(+) 아이 돌보기, 잔치그릇 대여, 한방진료 (-) 아이 돌보기, 아이옷, 장난감

윤○○(남) 강원도 ***, 0364-****-****

(+)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 일체 (-) 농번기에 일손 필요

나눔원칙: 연락이 닿은 두 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눔이 이루어진 등록자께서는 꼭 편집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3. 지역화폐 시작하기

지역화폐를 시작하기 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분명한 목표 설정**

·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보호, 자원봉사자 확대 등 지역화폐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자.

- **거래 방식의 단순화**

· 지역화폐는 온라인 거래, 수기로 작성하는 통장, 쿠폰, 자체 화폐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 중 지역적 특색에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순한 거래방식을 선택하자.

-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

· 온라인거래도 활용하지만 가능하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가맹점 확대, 장터, 이벤트 등을 마련해 화폐 이용자들의 교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 **화폐 할인제도**

· 자체화폐의 경우 초기에 5~10% 할인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하고 알릴 수 있다. 경기불황으로 5~10%의 할인으로도 많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구입할 유인동기가 크다.

- **화폐 환전시 기부제도**

· 지역화폐를 일반 화폐로 교환을 원할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로 지역단체, 복지분야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가맹점 확대**

· 지역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곳이 없으면 곧 재미를 잃는다. 발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개인/단체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효기간 설정**

· 화폐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 6개월, 1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기간 내에 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장터 및 이벤트 확대

- 유효기간이 끝나갈 즈음 장터 및 이벤트를 열어 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점에 지역화폐 거래 표시 및 광고

- 가맹점 앞과 내부에 지역화폐 거래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반드시 하자. 지역화폐를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했다면, 가맹점 홍보를 통해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

[일본 주먹밥통화, 춘천 이삭통화의 가맹점 내/외부 지역화폐 광고]



- 광고, 소책자 발간

-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화폐 뒷면 및 여백을 이용해 가맹점을 광고한다. 광고비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가맹점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가맹점 상호, 위치, 특징, 화폐 거래비율 등을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하면 지역화폐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자체발행 화폐 뒷면의 가맹점 광고 / 가맹점 및 지역화폐 사용법 안내 소책자]



- 지역화폐 교육의 장 확대

· 지역화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진행한다.

- 지역 신탁, 지역 은행과 연대

· 지역화폐의 경우 세금 및 회계상 정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지역 신탁 및 은행에서 담당하면 재정상 부담도 덜 수 있으며 보다 지역화폐를 홍보, 확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4.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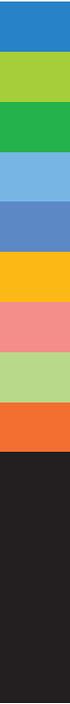
현재 부천에는 부천희망품앗이와 오거리화폐라는 두 가지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다. 참여자, 가맹점, 거래량 등 소규모지만 의미 있는 시도이다. 특히 약대동에서 거래되는 오거리화폐는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가맹점의 진입장벽이 낮다. 이를 통해 동네주민이 가까운 상점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오거리화폐는 프랜차이즈, 대형상점이 아닌 지역의 소규모 가게를 중심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사용한다. 더불어 영세한 상점을 가맹점으로 가입시키거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은 지역 자립경제를 시도하는 곳에 홍보와 확산이 필요한 모델이다.

현재 소규모로 이뤄지는 지역화폐의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화폐 사례를 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천희망품앗이의 경우 2009년 부천여성노동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회원들 간 인적네트워크, 재능기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체한다. 최근에 지역네트워크 단위를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화폐 발행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활발한 거래가 어렵다. 또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량에 한계가 있다. 오거리화폐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 및 정산이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어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결합이 필요하다. 본문에 소개된 지역화폐 중 지역사회(지역재단, 신협,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기업, 생협 등)와 결합한 곳은 더욱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회원단위, 소규모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이용의 한계라는 문제로 확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넓은 범위로는 지자체, 좁은 범위로는 자치구 및 ‘동’ 단위의 지역화폐 사용은 참여자와 가맹점 규모가 증가할수록 힘을 얻는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대기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자본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서로 이름도 모르고 살던 이웃들이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지역화폐 발행은 ‘돈이 돈을 낳는’ 이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다른 시도이기도 하다. ‘돈’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은행에 예금하고, 대출할 때마다 생산된다. 이런 까닭에 어떤 주체가 ‘돈’을 발행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그리고 ‘나’도, ‘이웃’도, ‘지역’에서도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지역화폐는 회원 조직 중심 등 소규모로 발행하는 방식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상상력의 확장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부천의 경우도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성남시 사례와 같이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중심의 금융기관과 결합해 화폐를 발행해 '시'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과 강원도 춘천과 같이 농가와 결합해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구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수도권 및 중앙 중심의 경제를 극복하고 지역과 공동체 단위 경제 및 관계 확산과 함께 또 다른 지역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420-812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Tel 032,320,6361 Fax 032,320,6429
www.bcf.or.kr